



문수사와 신곡리의 새해맞이

절이 있으므로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어서 절이 있다.
 '연기법'을 설명하는 경전 구절의 패러디일까? 경북 구미시 도계면 신곡리에 가 보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곡리는 얼핏 보기에도 가난의 때를 훌훌 벗어 던진 부촌이다. 시멘트 포장길과 말

썩한 지붕의 양옥집들. 한 겨울의 스산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신곡리는 누구에게나 포근한 '고향' 그 자체로 다가오는 정겨움이 넘친다. 그 훈훈한 기운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마을에서 할아버지 곁을오도 15분 거리. 거기가 신곡리 훈풍의 진원지 문수사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동짓날 팔죽 먹으며 스님과 둘러앉아 '농사설계'

기자가 찾아가 낚은 동짓날. 마침 법회가 끝나고 큰방에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앉아 팔죽 공양을 하고 있었다. 어정쩡한 자세로 인사를 하고 조용히 신도들 틈에 끼어 앉았다. 신도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인줄 알았으므로 그런데 아니었다.

"날이 풀리면 극락과 앞 밭에 사과나무를 심을까 하는데 일손 좀 보태 주시겠습니까? 400주를 흔사 심으려니 힘들 것 같아서..."

"아빠, 당연히 저희가 도와 드려야죠. 사과나무 400주는 대어섯 명이 도우면 금방 심어요."

스님의 조용한 요청을 큰 소리로 시원스레 받아들이는 아낙의 눈가엔 선한 미소가 가득하다. 문수사 신도회 총무 이재비심 보살이다.

"스님. 내년에도 고추 값이 올 만큼 좋을까요? 그렇다면 대어섯 마지기 심을 만 한 데 말이죠."

"그야 아무도 모르죠. 시세를 미리 안다면 부자 안 될 사람 없겠어요?"

"하하하"

"106가구 중 100가구 절에 다녀요" 혜향스님 "서로 도우며 살자" 강조 절일 · 마을일 구분 없이 손모아 척척

문수사 큰 방은 새해 농사설계로 뜨겁다. 농사일이며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럴 기색이 없다. 주지 혜향스님은 농사일을 물으면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집안일을 물으면 '동네 어른'이 된다. "신곡리 주민들은 모두 문수사를 다니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또 이 자비심 보살이 나선다.

"총 106가구, 불교 100가구, 기독교 3가구, 무교 3가구, 이상." 마치 군부대 점호 보고처럼 딱 부러지게 마을 종교 현황을 '보고' 하자 온 방이 웃음 도가니가 된다.

혜향스님과 마을의 인연은 40년 전부터 '스님과 신도' 관계를 떠나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강원과 선원을 찾아다니며 정진하던 혜향스님이 바람 하나를 메고 문수사

로 들어 온 다음해부터 마을 사람들과 스님은 공동체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1962년, 우리나라 모든 농촌이 그랬듯이 신곡리도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으며 사는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 혜향스님이 양봉 기술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스님이 영월 법흥사에서 기도할 때 마을 사람에게 우연히 배운 양봉법을 신곡리의 가난 되자 작전 제1호로 발동한 것. 처음엔 "그게 뭐 돈이 된다고..."하며 선 뜻 나서지 않았지만 스님의 정성어린 설득과 조금씩 늘어나는 법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벌을 자식 키우듯' 하게 됐고 10여년 만에 양봉 영농마을로 지정되어 명성까지 얻게 됐다.

은 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신곡리는 다시 가난 되자 작전 2호를 선포했다.

바로 과수원이었다. 일조량과 기후가 과수 재배에 적합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기에 이 작전도 성공했다. 성공한 것은 양봉과 과수원 농사뿐이 아니었다.

"옛보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이 제일 큰 농사 아니니까? 우리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단합이 잘된다고 믿고 있어요. 스님이 서로 협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잘못이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절에서 팔죽 공양이 끝나자 스님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을로 내려 왔다. 팔죽과 간지, 과일 등을 챙겨 들고 찾은 곳은 마을 경로당. 모여 있던 10여명의 어르신들이 "아이구, 팔죽 공양이 왔구나"하며 스님 일행을 반겼다. 경로당에서 또 한 바탕 팔죽 잔치가 벌어지며 내년 농사 얘기가 다시 불붙었다. 뒤편에 앉아 있던 기자에게 흥중경(73세) 할아버지가 말을 건넨다. "스님에게 받은 한 통의 벌이 지금은 셀 수가 없이 많아. 수천통의 벌통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자식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지." 김규원(70세) 할아버지도 거든다.

■혜향 스님 인터뷰

"중생 외면하면 불교가 아니죠" 불사가 있으면 주민들 자발적 참여

"60년대 초반 신곡마을에 처음 와서 보니 완전히 강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수와 보리농사 이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보리도 제대로 마음껏 못 먹을 정도로 가난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혜향스님은 손수 자비를 들여 양봉기술을 가르쳐 주며 함께 양봉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 양봉을 시작했을 때는 주민들의 참여가 대단했습니다. 농사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죠. 양봉을 열심히 한 사람 가운데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도 함께 양봉을 하며 생긴 수입으로 40년 동안 요사채, 수막전, 사자암을 건립 했으니까요"

스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다. 사찰에서 불사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윤력에 동참했고, 신임로 포장도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삶을 외면한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항상 중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생의 아픔을 달래주고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불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요?



"조선시대 문수사 중창조인 혜봉 스님은 노승이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었는데 노승은 문수보살의 화신이고 노승이 타고 온 말은 사자라며 신곡마을 뒷산을 정량산이라 명하고 문수사를 창건했습니다."

신곡마을 송도순 이상(63)이 전해주는 마을 내력이다. 시집와서 30년동안 신곡마을에 살고 있는 이재비심 문수사 권유회 총무 보살은 "처음 시집왔을때 동네 어른들이 문수사에서 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며 "지극정성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타고났는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등 훌륭하게 자라 마을의 자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곡마을에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만도 서울지검 김한범 검사, 변호사 김인수, 진원회사 등 다수이고 학계에는 김학목 부산대 교수, 김덕목 단국대 교수, 김기탁 상주대 총장, 김영수 안동대 교수 등이 지역 출신이다.

구미=김두식 기자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4년 본과생(학사) ■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중의약)	5년	◇ 자 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재학 및 졸업자(만 40세이하)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건강진단서 1통(영문) 여권용사진 10매,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학과 (사법대)	4년 (편입가능)	

- 2 학교 소개
-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이후(국회법통과)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 등 완비 ▶ 구입대 연기가능(6년)
 - ▶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

- 4 문의처
- 남경중의약대학 한국분교 : 삼화불교대
 - 전화 : 02-511-2026~7, FAX : 02-511-2028
 -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中國 南京市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25-632-2539, FAX : 25-532-0825

2004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개호복지사과	2년	■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각 종 단 승 령 교 사 · 30세 이상 ·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교육학 학위가능)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학위수여 가능)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포교사과과정	2년	■ 야간 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제 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2.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1994.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남경중의대학 30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남경중의대학 37명 합격
 2003. 9. 남경 중의대학 41명 합격
- 전과 중국학위 가능
 - 성적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외), 효장 사범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과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과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교육부 학력인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기간	모집 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남경한외대 입학가능, 남경사범대 입학가능

■ 문의처
 ☎ 02-511-1080
 ☎ 02-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성지 고등 불 교 학 교